

## DVD 영화의 자막 오역에 대한 조사연구

문 원 립  
(동국대)

### 1. 서론

DVD는 화질이 우수할 뿐 아니라 부피가 작고 내구성이 좋아서 개인이든 단체든 이제 소장용으로 VHS를 거의 대체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도 근래에 학과 소장용으로 새로 구입한 영화는 모두 DVD였다. 그런데 DVD 영화를 보면서 자주 느끼는 것은 번역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이다. 극장 상영 영화에서도 번역의 문제는 물론 있겠지만, DVD에서는 그게 훨씬 심각하게 여겨졌다. 다만 필자의 영어 청취력에 한계가 있고 또 영화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번역이 얼마만큼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들었다. 아마 이것은 DVD 영화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DVD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자막 오역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영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오역을 느끼고는 있지만 그 심각

성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필자가 다년간 영화과 학생이나 영화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자막 오역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필자는 90년대 중반에 국내에 대규모 국제영화제가 처음 생길 때부터 영화제 자막 관련 일을 하였고 자막 제작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번역 종사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들 또한 일반인들보다는 물론 낫긴 하지만 문제 인식이 부족해 보였다. 문제 개선의 출발점은 그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는 것일 것이다. 본고는 그 문제 인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는 것이 본고의 또 하나의 목적이다.

VHS 시절에도 번역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때는 원어를 정확히 알아듣거나 원어 대본을 구할 수 있어야만 번역의 정확도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DVD는 그 자체에 원어 자막이 있어서 조사를 진행하기가 수월하였다. 조사 대상 영화는 예술성이나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는 작품들로 하였으며, 언어는 필자의 능력 관계로 영어로 한정하였다. 영어로 한정하긴 하였지만, 번역 문제는 다른 외국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외국어는 영어에 비해 번역자 층이 얇고, 유럽영화 같은 경우는 영어권 영화 특히 미국영화에 비해 대체적으로 지적(知的)인 대사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 심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예상대로 많은 번역 오류들이 발견되었다. 오류가 적은 영화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허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을 넘었으며, 3·4편 중 하나는 아주 심각하였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작품별로 편차가 컸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작품의 난이도의 차이일 수도 있고 번역자의 능력 차이일 수도 있으나, 후자가 더 비중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 2. 영화 번역의 특성

번역 일반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영화 번역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드물다. 영화를 한 편이라도 번역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듯이, 자막 번역은 일반적인 문학작품의 번역과는 상당히 다르다. 하티프와 메이슨(Hatim

and Mason)은 자막 번역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430-431).

- (1) 말을 글로 옮기는 데 따른 문제. 예를 들어 억양에 의한 강조라든지 말투 같은 것을 자막으로 표현하기 힘들다.
- (2) 글자를 표시하는 물리적 공간이 제한되고(영어의 경우 한 줄에 최대 33~40자, 최대 2줄) 배우가 실제로 대사를 말하는 시간에 따라 글자가 화면에 머무는 시간이 제한되는 문제.
- (3) 위 2번의 결과로서 원래의 텍스트를 줄여야 하는 문제. 이 때문에 대사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위험이 크다. 더구나 영화 자막은 책과 달리 되돌아가서 읽을 수가 없다 (물론 혼자서 보는 DVD 같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
- (4) 자막이 영상과 일치해야 하는 문제. 예를 들어 특정 문구(자막)가 배우의 제스처와 일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4번 항목에 대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자막이 영상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영화 번역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 영상의 존재는 번역을 쉽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sup>1)</sup> 가령 한 배우가 냉소적인 어조로 “I love you”라고 말했다고 했을 때, 원어민이라면 그 억양만으로도 반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자막에 의존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해”라는 자막만으로는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그 배우의 표정이나 몸짓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애매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영상이 분명하게(disambiguate)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영상의 존재는 그래서 위에 열거한 문제점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자막 번역의 한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조금 달리 말하면, 영화의 자막은 문학의 텍스트와 달리 작품의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 전부가 아니며 영상 및 사운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자막 번역은 희곡 번역과 비슷하다. 희곡의 대사는 (읽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희곡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

1) 박윤철(2007)도 유사한 맥락의 논의를 하고 있다.

으로)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의 실연(performance)을 통해서 그 의미가 완전히 드러난다. 물론 영화의 자막은 번안극의 대사와 달리 배우가 그것을 (자막 텍스트를) 읽는 것은 아니다.<sup>2)</sup> 그러나 대사 텍스트를 연기를 포함한 다른 요소들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희곡 번역에 관한 기존 연구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텍스트를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포함된 전체에서 갖는 역할 혹은 기능에 초점을 맞춰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은 영화에도 상당히 적용될 듯하다(Bassnet 120-132).

영문학자 조성원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맥락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영상번역은 기술(記述)번역학(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이론의 선구자인 기드온 투리(Gideon Toury)가 번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초의 기준점으로 내세웠던 양대 축, 즉, 적합성(adequacy)과 용인성(acceptability) 중에서 용인성의 축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작업으로서, 수용문화 중심 번역(target-oriented translation)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조성원 34-35).” 즉, 영상번역은 그 “상업성, 대중성으로 인하여 수용문화의 요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런 의견은 다소 오해를 낳을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영화 번역이 수용문화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게 얼마만큼 당위적인 것일까. 수년 전에 영화 「히트」(Heat)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한 마지막 대사의 번역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다시는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했었지”를 “자넨 먼저 쓸 수도 있었어”라고 번역했던 것이다. 번역자는 “한국적인 신파를 만들어 내기 위해” 그랬다고 한다(구영식 90). 그런 번역이 대중성을 높이는 것이 사실일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는 그런 자의적인 해석에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한 번 보고 마는 시간 때우기 용 영화가 아니라 여러 번 볼 가치가 있고 학술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예술영화의 경우엔 그런 식의 번역은 용납될 수 없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도, 번역의 ‘정확도’를 기능함에 있어 조성원이 말한 것처럼 “향유관객층의 문화적·언어적 습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그리고 공간 및 시간이

---

2) 더빙의 경우는 번안극과 훨씬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화에선 성우와 배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 원문에 충실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 3. 조사 방법과 과정

번역 오류를 조사할 대상은 영화사적으로 혹은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영화로 하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 선택은 필자가 판단하여 할 수도 있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이 대략적이거나 오류에 대한 통계를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그래서 1차적으로 90년대 중반 한겨레신문에 연재된 “세계100대 영화”를 참조하였다.<sup>3)</sup>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에서는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과 감독상을 받은 영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두 그룹에서 무성영화를 제외하고 영어대사 영화는 40편 남짓 되는데 그 중에서 다시 DVD로 출시되지 않았거나 구할 수 없었던 영화, 그리고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외하니 32편이 최종 남게 되었다. 이 32편의 선정에 대해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기준이 번역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영화의 번역이 어렵거나 쉬울 거라는, 따라서 오류가 많거나 혹은 적을 거라는 판단에 의해 그 영화를 포함시키거나 제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고의 목적이 어느 한 편의 영화를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향을 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한 작품 당 30분씩만 조사하였으며, 영화 시작 30분부터 1시간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sup>4)</sup> 그리고 그 30분 내에 있는 전체 한글 자막 중에 오류가 발견되는 자막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조사하였다. 한 문장이 두 개 이상의 자막에 걸쳐 있을 때는 대개 그들을 묶어서 한 개의 오역으로 간주하였지만 개별 자막에 오류가 있을 때는 따로 계산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번역의 정확성의 기준일 것이다. 앞 섹션에서 나름대로 가이드를 제시하려고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주관적인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 우선 밝혀두고 싶은 것은, 문장의 의미가 똑같지 않더라도 의도가 충분히 잘 전달된다고 생각되면 오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3) <http://www.xinemaex.org/ex/study/history/cinema100/cinema100.html>

4) 단, 「멜홀랜드 드라이브」는 30분대에 수수께끼 같은—알 수 없는 ‘black book’이 나오는—장면이 있어서 1시간부터 1시간 30분까지로 하였다.

예로 「어둠 속의 댄서」 중에 셀마가 “It's been the same for the whole period I've been here”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직역하자면 “그것(집세)이 그 동안 (내가 세든 이후로) 한 번도 오르지 않았어요”가 되겠지만 자막은 “그 동안 신세진 걸 생각하면...”으로 되어있다. 집세가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다시 언급된다거나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이런 번역은 적절하다고 본다. 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유연한 번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sup>5)</sup>

그리고 직역하여 우리말 표현이 다소 어색하다든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도 본고에서는 오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한편, 오역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래에 기술할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E는 영어 원문, K는 그것의 한글 번역을 가리킨다.

(1) 문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정확하게는, E가 K를 의미하는 상황을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예로서 “Bearing up”(견디고 있어요)이란 대사를 “참아”로 번역한 것을 들 수 있다(「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Bearing up”이 “참아”를 의미하는 상황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첫 번째 유형을 ‘IP’(Improbable Interpretation)으로 부르겠다. 이 유형에는 전혀 비슷하지 않은 번역을 한 것도 포함된다. 「히트」에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했었지”를 “자넬 먼저 쏠 수도 있었어”로 번역한 것이 한 예다. 이 경우는 번역자가 원문의 문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IP 유형은 “문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sup>6)</sup>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드물며 대개 엉뚱한 번역은 번역자가 사전이 허용하는 (즉, “probable”한) 해석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지 못해 생긴다.

(2)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번역될 수도 있지만 이 영화는 아닌 경우. 다시 말해, E가 K를 의미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경우이다.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에서 “Okay, that's it”이란 대사를 “좋아, 바로 그거야”로 번역한 것이 한 예다. “Okay, that's it”을 “좋아, 바로 그거야”로 번역할 수 있는 상

5) 그렇다고 직역에 가깝게 번역한다 해서 나쁜 번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6) “문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번역자의 주관적 상태에 대한 판단인 반면, IP 유형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는 것이다.

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영화에서는 돈을 세고 나서 액수가 맞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 두 번째 유형을 ‘US’(Unsuitable Interpretation)으로 부르겠다.

(3) 조금 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바람직했던 경우. 즉, 의역이 불필요했거나 지나친 경우이다. 「현기증」에서 매들린이 자신의 짧았던 전생에 대해 “It was only a moment for you. You took no notice”라고 한 말을 “당신에게 버림받고는”이라고 번역한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따지자면 그런 뜻이라고 할 수는 있겠고, 앞 자막이 “죽었죠”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보다 “당신에겐 한 순간에 불과했죠. 하찮은”이라고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것이다. 이 세 번째 유형을 ‘BL’(Better Literal Interpretation)이라 부르겠다.

(4) 문장의 전체 혹은 일부가 생략이 되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야 했던 경우. 영화번역은 그 특성상 생략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시간 여유가 있으므로 그러지 않아도 되었거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번역을 했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피아노」에서 아이들의 공연 중에 나오는 대사 “I am home early my sweet wife...”를 “여보 내가 왔소”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 “early”를 생략하지 않았어야 했다. 일찍 오는 바람에 아내의 비밀이 탄로나기 때문이다. 이 네 번째 유형을 ‘IO’(Inappropriate Omission)이라 부르겠다.

끝으로 언급할 사항은 영화 중에 나오는 노래나 시의 번역이다. 이들은 대부분 오역이 심해서 일반적인 대사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어둠 속의 댄서」에선 「크왈다」(Cvalda)와 「모든 것을 보았어요」(I've Seen It All) 두 곡의 가사 자막을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올란도」는 대사 자체가 시적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한 편의 온전한 시가 10개의 자막에 걸쳐 나오는 것이 (올란도의 습작시를 비웃는 그린의 답시) 있는데 그건 제외하였다. 「사랑은 비를 타고」도 노래가 많았지만 이걸 다행히 가사가 다른 대사에 비해 어렵지 않아 별도로 취급하지 않았다. 노래와 시의 번역에 대해선 섹션 5에서 조금 더 논의할 것이다.

## 4. 오역 사례

32편 전체의 오역 조사 결과는 다음 섹션의 표 1에 나타내었고, 여기서는 상위 몇 편에 대해 구체적 오역 사례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각 설명의 서두에 오역의 유형을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펀치 드링크 러브>

(배리) I'm just nervous about this. I don't know the proper etiquette in this situation.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	-----------------------

(US) 신용카드사의 상담원이 카드 번호를 말하라고 했을 때의 배리의 반응인데, “nervous”하다고 한 건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혼란 경험 때문에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에티켓을 언급한 것도, 말 안 하면 상대(상담원)가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한글 번역으로는 마치 배리가 범법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상담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배리) I'm sorry I sound panicked. (상담원) That's okay--	한 가지만 더요
---	----------

(IP) 곧 이어서 나오는 대사인데, 짧은 시간에 다 전달하기 힘든 점을 인정한다 해도 의미가 너무 다르다. 번역과 달리 원래 대사는 주인공 배리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제가 너무 소심했죠” 정도로 할 수 있겠다.

(엘리자베스) He's wearing that damn suit again. I don't know why.	또 양복이야
---	--------

(US) 배리가 (점잖지 못한) 푸른 색 양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여동생인 엘리자베스가 하는 말이다. “또 저 양복이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엘리자베스) He's strange. I don't know if you'd want to date him.	오빠 만나고 싶다는 너도 이상하고
---	--------------------

(IP) “I don't know if you'd want to date him”은 “너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는 뜻이다. 이것이 어떻게 “...너도 이상하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번역문 자체도 맥락과 맞지 않다. 배리를 만나고 싶다는 말을 했을 당시의 레나는 배리의 “이상함”을 몰랐을 것이므로, 그 말 때문에 레나를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다.

(레나) You must travel quite a lot.	여행 하시겠네요
-----------------------------------	----------

(US) 문맥으로 봐서 “여행 자주 하시겠네요”가 맞다.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톨리버) Okay, that's it.	좋아, 바로 그거야
------------------------	------------

(US) 톨리버가 에드에게서 받은 돈을 다 세었을 때 한 대사인데, 돈의 액수가 맞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글 번역은 부적절하다.

(에드) But like she said, we had a commitment.	가기로 약속을 한 터였다
--	---------------

(US) 에드가 아내 도리스와 함께 친척 결혼식에 가면서 하는 독백이다. 여기서 “commitment”는 구체적 약속이 아니라 가족 사이의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리스) Congratulations on your goddam cherries!	딱지 뎀 거 축하해
--	------------

(US) 도리스가 이 말을 하기 전에 결혼을 버찌 한 사발(a bowl of cherries)에

비유했는데, 달콤한 건 한 사발로 끝이라는 의미로 판단된다. “잘 먹고 잘 살아 봐!” 정도로 할 수 있겠다.

(월터) I won't kid you, Ed.	믿어도 될 거야
---------------------------	----------

(US) 친구 월터가 에드에게 변호인을 추천하면서 하는 말인데, 이 근처엔 경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이어지므로,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뜻으로 봐야 할 것이다. 칭찬은 했지만, 과도한 믿음을 가지게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도리스) My books used to be perfect.	내 회계장부는 완벽했죠
------------------------------------	--------------

(US) 감옥의 도리스가 면회 온 에드에게 하는 말이다. 번역은 마치 장부를 완벽하게 조작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를 하기 전 깨끗했던 시절을 언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둠 속의 댄서>

(공장의 감독) This pallet must never be empty.	부품이 떨어지면 안돼요
---	--------------

(BL) 공장에서 감독이 셸마에게 지시하는 말이다. “pallet”을 번역하기 힘든 점은 이해하지만 그게 화면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손으로 가리키고 있으므로 “이 단이 비어 있으면 안돼요” 정도로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부품이 모자라는 상황은 아니다.

(셸마) She is quite serious then?	진지한 역인가요?
---------------------------------	-----------

(US) 셸마가 (이유는 말 못한 채) 마리아 역을 못하겠다고 하자 사무엘이 작은 역을 제의하는데, 이 대사는 그것에 대한 셸마의 반응이다. 여기서 “serious”는

“중요한”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시력 때문에 마리아 역을 포기하지  
 만 그래도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다.

(셀마) I'm not dancing really.	정말 춤이 없나요?
------------------------------	------------

(US)7) 속으론 추고 싶지만 겉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춤은 정말 안 출 거  
 예요.”

(셀마) No.	없어요?
----------	------

(US) “정말요.” 위 대사에 이어서 안 출 거라는 걸 (속마음은 아니지만) 강조하  
 는 것이다.

(사무엘) You'll always be my perfect Maria.	언제든 마리아 역을 해줘요
--	----------------

(US) “내게 항상 최고의 마리아일 거예요”라고 해야겠다.

(노먼) What do you reckon I'm gonna do if I can't bawl you out for learning your lines on company time?	작업 중에 가사 외운다고 야단칠 일도 없겠군요
---	------------------------------

(IO) 셀마가 마리아 역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노먼이 던지는 농담인  
 데, 번역은 전혀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다. “작업 중에 가사 외운다고 야단칠 일  
 이 없어져 심심하겠네요.” 정도로 할 수 있겠다.

7) 이 자막만 보면 US로 분류하기 힘들지만 (E가 K를 의미하는 상황을 생각하기 힘들  
 므로), 오류의 근원이 앞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하였다. 다음  
 자막도 마찬가지.

<현기증>

(스카티) Boy, I need this.	마실게
-------------------------	-----

(US) 존이 개빈으로부터 매들린에 관한 심각한 얘길 듣고 나서 앞에 있는 술잔을 들며 “한 잔 해야겠어”라고 말하는 것이다.

(스카티) And I tried to dry your hair as best I could.	머리를 말려드리려고
---	------------

(IP) 물에 빠져 의식을 잃었다가 한참 후 깨어난 매들린에게 스카티가 하는 말이다. 다음 한글 자막은 다른 문장이므로 “머리를 말려드리려고”는 끝에 ‘했다’가 생략된 것으로 봐야 하겠다. 하지만 원문은 그런 의도 혹은 시도만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나름대로 말렸다” 정도의 의미이겠다. (말림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

(매들린) But then I must have had a dizzy spell and fainted.	하지만 기억이 흐릿해서
---	--------------

(IP) 어지러운 건 기억이 흐릿한 것과 다르다.

(매들린) I shall call you Mr. Ferguson.	그럼 휘거슨씨로...
--------------------------------------	-------------

(US) 스카티에게 “친구들은 당신을 존이라고 부르나요?”라고 묻고 존이나 스카티라고 부른다고 대답하자 매들린이 하는 대사인데, “그럼”이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럼”은 “친구들이 당신을 그렇게 부른다면”의 뜻이겠는데, 격식을 차린 “휘거슨씨”란 호칭은 친구들이 부르는 이름과 무관한 것 아닌가? “친구들이 애칭을 쓴다면 (친구가 아닌) 난 애칭을 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격이다.

그냥 “전 휘거슨씨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스카티) After what happened this afternoon, I should think you'd call me Scottie.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스카티라고 불러줘요
--	----------------------------

(IP) 번역은 오늘 있었던 일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데, 원문은 그 반대다. 오늘 있었던 일로 해서 자신을 스카티로 불러도 될 정도로 가까워지지 않았냐는 말이다.

(매들린) It's a formal thank-you note and a great big apology.	사과의 말을 하려고
--	------------

(IO) 자신이 문 안에 넣어놓은 편지에 대해 하는 말인데 번역에선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편지가 사소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뒤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므로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감사와 사과의 편지예요”라고 하면 되겠다.

(스카티) I hope we will too.	우리 말이에요
---------------------------	---------

(IO) 매들린이 가져온 편지를 스카티가 들고 읽고 있는데 내용이 직접 소개되지는 않지만 아마 끝에 “I hope we will meet again sometime”이라는 말이 있었던 모양이다. 스카티의 대사는 그것에 대한 반응인데, 재미있는 대사이므로 가능한 살려야 할 것이다. “저도 그러길 바래요.” 정도로 할 수 있겠다. 참고로 이어지는 대사를 소개하면, (매들린) “What?” (스카티) “Meet again sometime.” (매들린) “We have.”

(스카티) Their true name is Sequoia sempervirens. "Always green, ever living."	영원히 살죠
--	--------

(US) 오래된 나무를 보며 하는 말. “Always green, ever living.”은 라틴어 “sempervirens”의 뜻이다. 자막 길이가 4초가 되므로 “이름은 세쿼이아 썸페비렌스. 영원히 산다는 뜻이죠”라고 할 수 있겠다. 더 줄여야 한다면 “영원히 산다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정도.

(매들린) It was only a moment for you. You took no notice.	당신에게 버림받고는
--	------------

(BL) 나무의 나이테를 손가락으로 집으며 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었다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다. “당신에겐 한 순간에 불과했죠 / 하찮은.”

(매들린)...that once was mirrored, and fragments of that mirror still hang there...	예전에 거울에 비춰봤던... 거울의 파편들이 남아있어요
---	-----------------------------------

(IP) 매들린이 환상 속에서 본 복도를 묘사하는 것인데, 여기서 “mirrored”는 그 복도 벽이 거울로 되어 있었다는 뜻일 것이다.

<피아노>

(모랙) Certainly, there is nothing so easy to like as a pet... and they're quite silent.	똑같이 말은 못하지만 애완동물 같지 않겠지
--	----------------------------

(IP) 스투어트의 친척 아주머니의 대사. 애완동물이 말을 못하지만 쉽게 좋아지듯이, 에이다도 말을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닐 수 있다는 뜻인데 번역은 거의 그 반대 의미를 담고 있다.

(조지) That's a lot less. Half.	그건 너무 적소 / 절반에 한 번씩
-------------------------------	---------------------

(US) 에이다가 검은 건반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이자 조지가 하는 말이다. “그건 너무 적소. (검은 건반은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되잖소”라는 뜻이다.

(원주민 여자) Quiet, balls were wasted on you. And you would know.	당신에겐 필요 없잖우
--	-------------

(US) 옆에 있는 원주민 젊은이에게 한 말인데 마치 조지에게 하는 말처럼 번역되었다. “조용히 해”(Quiet)라고 반말하고서 “당신에겐 필요 없잖우”라고 하진 않을 것이다.

(조지) Two keys.	건반이 두 개였소
----------------	-----------

(US) 에이다가 연주를 중단하자 조지가 제의하는 것이다. “건반 두 개를 주겠소” 정도로 번역해야 옳다.

(플로라) I shall listen hard to rehearsal...	리허설을 잘 들어야 해요
---	---------------

(IP) 1인칭 서술문에서 ‘shall’이 의무를 뜻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의무보다는 잘 들겠다는 의지로 봐야 할 것이다.

(조지) Ada. Four keys.	에이다, 네 개 쳤잖소
----------------------	--------------

(US) 위의 “Two keys”와 같은 문제. 이번엔 한꺼번에 4개의 건반을 주겠다는 것이다.

(블루비어드) I am home early my sweet wife...	내가 돌아왔소 / 사랑스런 아내여!
--	---------------------

(IO) 아이들의 공연 「푸른 수업」 중에 나오는 대사인데, 원문의 “early”를 살려야 한다고 본다. 일찍 오는 바람에 비밀이 탄로가 나기 때문이다. “오늘은 일찍 왔소 / 사랑하는 아내여.”

<택시 드라이버>

(트래비스) I shouldn't complain, though.	어쩔 도리가 없다
--------------------------------------	-----------

(IP) 여자(벤티)가 상대해주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대해 한 말인데, 이어지는 내용으로 봐서 “마음을 편하게 먹자” 정도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어쩔 도리가 없는 건 맞지만, 트래비스의 대사는 그 사실에 대한 반응, 취해야 할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트래비스) Why don't you answer my calls? You think I don't know you're here.	왜 전화도 안 받지? 내가 모를 줄 알아?
--	----------------------------

(IO) 트래비스가 벤티를 찾아가서 따지는 장면인데, 이어지는 자막을 봐도 뭘 모를 줄 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있으면서도 안 받는 거 다 알아”로 되어야 하겠다. 글자 수가 문제라면 “왜 날 무시해”도 가능할 것이다.

(트래비스) They are like a union.	똑같은 심장을 가진 / 냉혈 동물처럼
-------------------------------	----------------------

(BL) 냉담한 인간들, 특히 여자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는 내레이션인데, 원문에 “냉혈동물”은 없지만 그런 비유는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똑같은 심장”은 부적절해 보인다. 여기서 “union”은 “한 통속” 정도의 의미일 것이다.

(택시 손님) Did I tell you-- Did I tell you to do that with the meter?	미터기 그냥 두라고 말하지 않았나?
---	---------------------



(US) “그냥 두라”고 한 적이 없고 원문도 그런 의미가 아니므로 “그냥 두라고 말하지 않았나?”는 옳지 않다. “내가 미터기 올리라고 했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기사) I'd be broke tonight if I hadn't caught me some people from Ohio out at Kennedy. I took 'em into Manhattan by way of Long Beach. Tipped me five dollars.	난 팁도 못 건졌어 공항에서 촌놈들 태우고 롱비치를 거쳐 맨하탄까지 갔는데도
---	---

(IO) 한 택시 기사가 동료에게 하는 말. 그 “촌놈들”에게서 받은 5 달러의 팁이 작은 액수라면 조금 과장해서 “난 팁도 못 건졌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맥이나 시대적 배경을 봐서 아주 작은 액수는 아니다. 그래서 “팁도 못 건졌어”는 부적절하고 따라서 US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손님들이 아니었으면 오늘밤은 공쳤을 거라는 말이 빠져있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IO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트래비스) Ya know, I really wanna-- I got some bad ideas in my head.	뭔가를 하고 싶어 궁리는 많이 해 보지만
---	---------------------------

(IO) 트래비스가 나중에 할 행동들을 생각하면, “bad idea” 부분을 살려야 한다고 본다. “뭔가를 하고 싶다”는 너무 순하다. “난 정말 뭔가를 하고... / 내 머리엔 위험한 생각들이 떠다녀.”

(위저드) You get a job. You become the job.	직업을 가지면 그게 얼굴에 나타나
--	-----------------------

(US) 직업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다는 뜻인데, 비슷하긴 하지만, 인간이 (그의) 직업과 일체가 된다는 말과는 분명 다르다. “직업을 가지면, 네가 그 직업이 돼”는 그 자체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의 대화를 다 들어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자신의 삶/직업에 만족하라,

혹은 만족하게 될 거라는 말이다.

(펠턴타인) Well, Mr. Goodwin is a fine man. I would certainly, if it came to it, prefer him... to our opponent in the other party.	훌륭한 인물이고 그만한 상대라면 경쟁할 맛도 나지만
--	------------------------------------

(US) 대통령 후보 펠턴타인이 TV에 출연해서 하는 말인데, 예비선거의 개념이 우리에게 생소한 건 사실이지만, “그만한 상대라면 경쟁할 맛도 나지만”이란 근거 없는 번역을 해야 할까. 그냥 “다른 당 후보보단 낫지만”이라고 하면 관객은 같은 당의 사람과 경쟁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앤디) Snub-nose. Otherwise the same as a service revolver. That'll stop anything that moves.	총신이 짧아 조준하기도 쉽고
---	--------------------

(IO) 트레이비스에게 총을 보여주며 하는 대사이다. 조준하기 쉽다는 말이 원문에 없을 뿐 아니라, 총신이 짧은 것이 조준하기 쉬운 이유가 되는지도 의문이다. 원문의 의미는 총신이 짧지만 균용과 같은 수준이고 파위가 대단하다는 것이다.

(트레이비스) All the king's men... cannot put it back together again.	정의를 구현할 힘이 필요하다
---	-----------------

(BL) 대통령 후보 펠턴타인의 포스터가 화면에 보이면서 나오는 트레이비스의 내레이션이다. 직역하면 “왕의 부하들이 다 모여도 그것(정의로운 사회)을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 이상 정치가들을 믿을 수 없다” 정도로 할 수 있겠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데미언) Hold it up.	진정해
-------------------	-----

(US) 데미언이 상처를 봐주려고 케빈의 얼굴을 붙잡으며 하는 대사. 직전에 케빈이 “I’m alright”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정해”는 안 어울린다. “가만있어 봐” 정도가 좋겠다.

(덴) "Disloyally affected person", whatever that means.	불순세력의 영향을 받았대나 어쩔대나
---	------------------------

(US) 딱히 오역이라고 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마치 “under the influence”를 “술에 취한”으로 번역해야 할 때에 “술의 영향을 받은”이라고 번역하는 것 같다. “불온사상에 물든”이나 “불순한 생각을 가진” 정도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심문관) What do you fucking well expect? These men fought at the Somme,	그럼 뭘 기대했는데? 니가 말한 그 군인들이 솜강에서 싸웠어
--	--------------------------------------

(US) 데미언을 심문하는 영국군 장교의 대사. 데미언이 자신을 아일랜드 공화국 군인이라고 말한 적은 있어도 영국군을 언급한 적은 없기 때문에 “니가 말한 그 군인들이...”는 부적절하다. “우리 군인들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So I turned to the garden of love...	그래서 나는 사랑의 정원으로 돌아왔다
--	-------------------------

(US) 감옥 벽에 적혀있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구절인데, “돌아왔다”가 아니라 “향했다”라고 해야 한다. “사랑의 정원”에 갔는데 그 가운데, 어릴 적 놀던 풀밭이 있던 곳엔 예배당이 서 있었고 문이 닫혀 있었다. 그래서 꽃들이 있던 정원으로 향한 것이다.

...and priests in black gowns were walking their rounds and...	검은 가운을 입은 사제들이 정원을 돌고 있고
---	-----------------------------

(US) 꽃들이 있던 그곳엔 이제 무덤들이 있었다. 그래서 “정원을 돌고 있고”는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 “무덤들을 돌고 있고”라고 하는 것이 영화 장면과 어울릴 것 같다. 그냥 “그곳을 돌고 있고”라고 할 수도 있겠다.

(덴) I got deported to Wales. Frongoch Camp.	난 웨일즈로 추방됐다네 프롱고흐 캠프로...
--	-----------------------------

(US)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비유하자면, 조선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일본에 있는 감옥으로 끌려갔다면 “추방”이란 단어는 쓰지 않을 것이다. “웨일즈로 이송됐다네”로 하거나 “웨일즈에서 옥살이 했지”로 해야겠다.

(덴) Don't tell these bastards, but they were the best years of my life.	이놈들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였지
--	-----------------------------------

(IP) “이놈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이 아니라 “이놈들에게 말하지 말게”다.

(시네드) Bearing up.	참아
-------------------	----

(IP) 고문당한 테디의 몸 상태에 대해 덴이 묻자 간호하고 있던 시네드가 “견디고 있어요”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버나렛) What made you do it? (고건) I don't know.	- 왜 그렇게 했는데? - 모르겠어요
--	-------------------------

(US) 앞 장면에서 고건이 자신의 신분을 포기해가며 주인공 일행을 탈출시켜줬는데, 어떻게 그런 큰일을 (어린 나이에) 할 수 있었냐는 질문이다. 한글 번역은 마치 따지는 듯하다.

(콩고) That's for you, Teddy. You've got to rest.	테디 말을 타고 가 너도 좀 쉬어야지
--	-------------------------

(US) 고문으로 몸이 약해진 테디에게 하는 말이므로 “너도 좀 쉬어야지”는 걸 맞지 않다. “넌 쉬어야 해” 혹은 “넌 좀 쉬어야지.”

(네드) He cost us three lives already. It could've been more.	그자 때문에 벌써 3명이 죽었어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	---------------------------------------

(IP)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가 아니라 “더 죽었을 수도 있었어”다.

Some fantastic things are happening for the Republican cause.	공화주의자들에게 멋진 일들이 일어났어
--	-------------------------

(US) 공화국 범정을 보러온 사람들 앞에서 한 간부가 하는 말인데, 번역이 상당히 어색하다. 시제도 맞지 않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진행이다. “우리 투쟁을 돕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라거나 그냥 간단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어”라고 할 수 있겠다.

They're hitting back though. We lost two fellas down by O'Connor's.	그래도 언젠가는 반격을 할 거야
--	-------------------

(IP) “언젠가는 반격을 할 거야”가 아니라 “반격이 없는 건 아냐”이다.

(스위니) That's very clear.	그건 합법적인 거라구요
--------------------------	--------------

(US) 부자인 스위니(Mr.)와 가난한 래퍼티(Mrs.)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장면. 판사가 “솔직히 말해 전 래퍼티 부인에게 동정이 가는군요”라고 하자 스위니가 냉소적으로 “그건 말 안 해도 알겠네요”라고 하는 것이다.

## 5. 결과와 분석

번호	영화	전체 자막 수	오역 자막	
			합	%
1	펀치 드렁크 러브 (Punch-Drunk Love, 2002)	378	5	1.3
2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Man Who Wasn't There, 2001)	349	5	1.4
3	어둠 속의 댄서 (Dancer in the Dark, 2000)	262	6	2.3
4	현기증 (Vertigo, 1958)	295	10	3.4
5	피아노 (The Piano, 1993)	214	8	3.8
6	택시 드라이버 (Taxi Driver, 1976)	227	10	4.4
7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The Wind That Shakes the Barley, 2006)	299	14	4.7
8	천국보다 낫선 (Stranger Than Paradise, 1984)	370	18	4.9
9	피아니스트 (The Pianist, 2002)	222	12	5.4
10	성난 황소 (Raging Bull, 1980)	416	24	5.8
11	엘리펀트 (Elephant, 2003)	168	10	6.0
12	용서받지 못한 자 (Unforgiven, 1992)	446	27	6.1
13	파고 (Fargo, 1996)	370	24	6.5
14	비밀과 거짓말 (Secrets and Lies, 1996)	338	22	6.5
15	비는 사랑을 타고 (Singin' in the Rain, 1952)	290	23	7.9
16	멀홀랜드 드라이브 (Mulholland Dr., 2001)	305	25	8.2
17	바람에 쓰다 (Written on the Wind, 1956)	302	25	8.3
18	블레이드 러너 (Blade Runner, 1982)	182	16	8.8
19	수색자 (The Searchers, 1956)	306	28	9.2
20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A Space Odyssey, 1968)	177	19	11
21	말타의 매 (Maltese Falcon, 1941)	530	60	11
22	보니 앤 클라이드 (Bonnie and Clyde, 1967)	307	37	12
23	애니 홀 (Annie Hall, 1977)	509	67	13
24	똑바로 해라 (Do the Right Thing, 1989)	420	58	14
25	제너럴 (The General, 1998)	328	57	17
26	바톤 핑크 (Barton Fink, 1991)	392	69	18
27	대부 (The Godfather, 1972)	275	49	18
28	이지 라이더 (Easy Rider, 1969)	176	37	21
29	지옥의 묵시록 (Apocalypse Now, 1979)	297	63	21
30	제 3의 사나이 (The Third Man, 1949)	372	86	23
31	올란도 (Orlando, 1992)	204	55	27
32	시민 케인 (Citizen Kane 1941)	475	143	30

표 1. 32편의 DVD 영화의 오역 수준 비교

앞 섹션에서 설명했듯이 표 1에서 “전체 자막 수”는 영화 중의 30분에 포함된 한글 자막의 수이고, 오역 자막의 백분율(%)은 오역이 있는 자막들 즉, “합”을 전체 자막 수로 나눠 100을 곱한 것이다.<sup>8)</sup> 표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오역 수준의 편차가 아주 크다는 것이다. 오역이 미미한 영화에서부터 3-4개의 자막 중 하나에 오역이 있는 영화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하나는 번역자의 능력 차이이고 또 하나는 영화대사 자체의 난이도 차이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두 이유가 모두 있지만 전자가 더 큰 것 같다. 표에서 아래로 갈수록 대체로 대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오역의 큰 편차를 설명할 수 없다. 어렵다 해도 어차피 모두 대중을 상대로 한 영화들이 아닌가. 어려운 철학이나 문학 서적이 아닌 것이다. 대중영화의 대사가 난해한 것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번역자의 능력 차이는 표 1의 편차를 설명할 만큼 충분히 클 수 있다.

번역자의 능력이 더 큰 요소라는 건 이렇게 짐작이 가능하지만 약간의 검증은 해보기 위해 동일 번역자에게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영화 한 편씩을 번역 의뢰해보았다. 그 결과가 표 2이다. 두 영화에 차이가 있지만 표 1의 그것 보다는 훨씬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갑, 을은 둘 다 어느 정도 영상물 번역 경험이 있는 번역자들이다.

번역자	오역 백분율(%)	
	피아노	이지 라이더
갑	7.2	13
을	12	16

표 2. 동일 번역자에 의한 번역 결과

표 1의 편차가 주로 번역자의 능력 때문이라면 그것은 문제 개선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올란도」의 오역은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고 「핀치 드링크 러브」를 번역한 사람이 그것을 번역한다고 해도 비슷한 수준의

8) 전체 자막 수는 자막을 나누는 것에 따라 상당히 변할 수 있으므로 오역 백분율의 약간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오역이 나온다면, 문제 개선은 힘들지 않겠는가? 그러나 「올란도」의 오역이 주로 그 번역자 때문이라면 「핀치 드링크 러브」의 번역자가 번역하면 훨씬 나올 것이다. 물론 후자에겐 번역료를 많이 줘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다 DVD인데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있겠는가. 별로 크지 않는 투자로 DVD 자막 오역의 문제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표 2에서 보듯 영화의 난이도 차이도 분명 존재하고, 현재 국내에서 DVD 영화 번역하는 사람 중 최상위 그룹에게 의뢰한다고 해도 「올란도」 같은 영화의 번역이 만족스러울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것은 「어둠 속의 댄서」 중 노래의 번역에서도 드러난다. 다른 부분은 상당히 유려하게 번역을 하였음에도 「모든 것을 보았어요」의 번역에선 많은 오역, 혹은 덜 유려한 번역이 보였다. 아래 표 3은 그 번역에서 아쉬운 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노래나 시는 일반 대사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고 표 1에서도 그것들을 제외하였지만, 이것은 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들의 예술성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일반 대사의 번역 수준을 높이는 것은 위에서 주장했듯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노래나 시 혹은 그런 류의 대사 번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한 단계 높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영화정책 당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번역 문화 전체의 문제일 것이다.<sup>9)</sup>

오역의 유형은 IP와 US가 대부분이고 BL과 IO는 비중이 낮았다. BL 유형은 대개 10% 미만, IO 유형은 대개 20% 미만이었다. 그리고 이 두 유형은 영화의 오역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 (즉, 표 1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옴에 따라) 어떤 뚜렷한 추세를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IP와 US 유형은 일정한 추세를 드러내었다. 아래 도표 1은 오역이 증가함에 따라 IP 유형의 비중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도표 2는 US 유형의 비중이 변하는 것을 보여준다. 도표 1에서 보듯 오역이 증가함에 따라 IP 유형의 비중도 증가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IP 유형의 오역은 문맥 이전에 영어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

9) 국내 영어 번역의 현실에 대해서는 박경일(2003) 참조.



표 3. 「어둠 속의 댄서」 중 「모든 것을 보았어요」의 번역 오류

I've seen what I was and I know what I'll be.	과거는 이미 보았고 미래의 모습도 알고 있어요
누구 혹은 무엇의 과거와 미래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없다. 나의 과거와 미래를 말하는 거라는 것을 안다 해도 “과거를 보았다”는 너무 막연하다. 그건 나의 과거 삶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이다. 원문은 그와 달리 훨씬 제한적이다. 내가 겪은 사건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았고, 미래의 모습도 알아요”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이다.	
I'm happy to say / I had better to do.	내겐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더 좋은 일이 있어요”가 낫다. 비슷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중요해도 하기 싫은 일은 얼마든지 있다.	
All walls are great if the roof doesn't fall.	무너지지만 않으면 성은 모두 똑같아요
여기서 “wall”은 “벽”이라고 번역해야 옳다. “지붕을 지탱하기만 하면 모든 벽은 다 위대해요.” 만리장성에 대해 한 말이라서 “성”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위대하다면서 자위하려는 것이 핵심인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	
I have seen water. It's water, that's all.	물을 봤으니 그걸로 됐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 한 말인데, “그건 물일 뿐이에요”라고 해야 할 것이다. 부자의 돈에 대해 “그건 종이일 뿐이야”라고 하는 것은 “내게도 종이 있으니 됐어”와 다르다. 후자에는 애써 자위하려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My pulse was as high on my very first date.	내 맥박도 그만큼 높을 걸요
“첫 데이트 때 내 맥박은 그만큼 높았어요” “date”를 달리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가장 어울린다.	
I've seen the brightness in one little spark.	조그만 섬광 속에 반짝이는 빛도 보았고
“섬광”이 반짝이는 빛을 의미하는 단어이므로 “섬광 속에 반짝이는 빛”은 이상하다. “조그만 섬광의 눈부심” 정도로 할 수 있겠다.	

죽해서 주로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오역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 있다면, 일정한 추세는 있지만 그 추세 내에서 기복이 심하다는 것과 15% 오역 무렵부터 추세가 둔화된다는 것이다. 기복이 심한 것은 영화의 유형 차이에 기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번역자의 번역 스타일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일정 시점부터 추세가 꺾이는 것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할 듯하다.

## 6. 결론

현재 국내에서 DVD 영화의 번역료는 아주 낮아서, 극장영화나 방송물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좋은 번역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일련의 DVD 영화들의 자막 번역을 조사한 결과 예상대로 전체적으로 오역이 많이 있었다. 6편 중 하나에서는 20% 이상의 자막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한편 번역이 좋은 영화도 일부 있었으며 이것은 현재의 영상번역가들 가운데서도 좋은 번역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적절한 선별 혹은 평가 과정만 있어도 소비자들이 접하는 영화번역 수준은 대폭 향상될 것이다. 문학이나 철학 서적과 달리 영상물의 번역은 투자 대비 큰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야이다. 대학에서 영화를 가르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영화정책 당국이나 번역계에 일정한 노력을 해 줄 것을 호소하고 싶다.

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번역 일을 해온 번역자들에게 미안한 심정을 표하고 싶다. 아마 일부에게는 필자가 너무 쉽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여겨졌을지도 모르겠다. 본 연구의 목적상 어쩔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남이 한 일을 평가하는 건 언제나 쉬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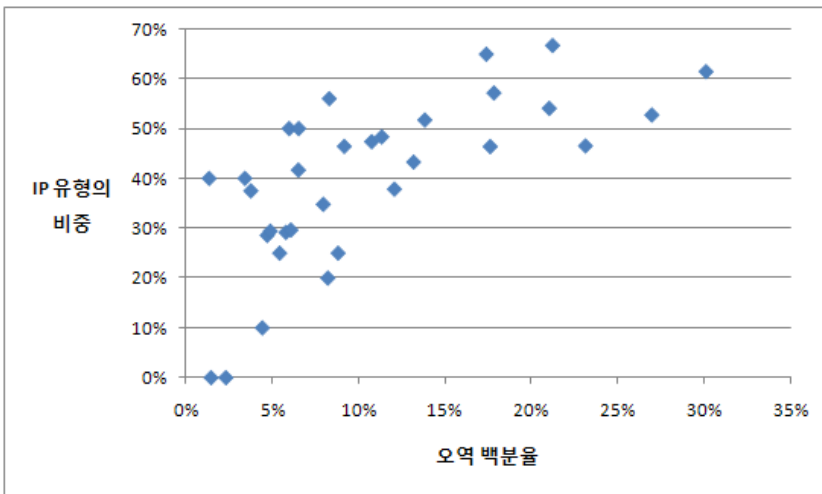


도표 1. 오역 증가에 따른 IP 유형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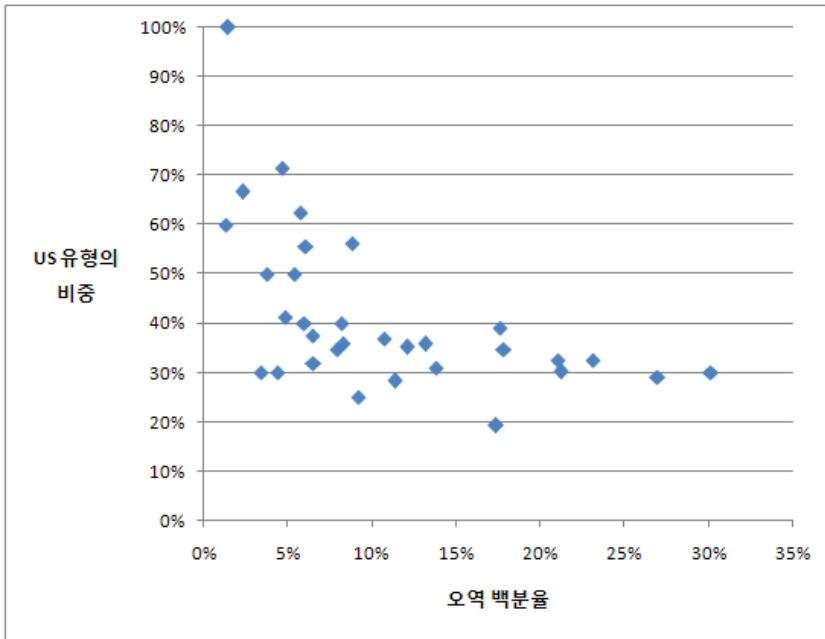


도표 2. 오역 증가에 따른 US 유형의 변화

### 참고문헌

- 김지원. 2004. 「번역학의 어제와 오늘」. 『번역학연구』 5.1: 55-75.
- 구영식. 1997. 「당신 없어도 번역할 사람은 줄서 있어」. 『사회평론』 1997.4: 86-91.
- 박경일. 2003. 「영어/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탈이론적 방법론 서설」. 『번역학연구』 4.1: 5-26.
- 박윤철. 2007. 「영화자막에서 시각기호에 의한 축소번역」. 『번역학연구』 8.1: 125-149.
- 정인희. 2006. 「영한 영상번역 전략 연구」. 『번역학연구』 7.2: 207-232.

- 조성원. 2004. 「세익스피어 영상번역과 젠더」. 『비교문학』 32: 31-50.
- 李左知子. 2004. 「일본 텔레비전 드라마 <여름 눈>의 한글 자막에 나타난 오역 사례 연구」. 『번역학연구』 5.2: 31-46.
- Basil Hatim and Ian Mason. 1997. "Politeness in Screen Translating" in L. Venuti(ed.). 2000.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New York: Routledge. 430-445.
- Susan Bassnett. 1991. *Translation Studies*. Routledge.

[Abstract]

## A Survey of Translation Errors in Korean Subtitles of DVD Movies

Moon, Won-Leep  
(Dongguk University)

Recently DVD has replaced VHS as the preferred format of personal or institutional acquisitions. But the quality of subtitle translations in those DVDs has been felt to be dismal. To confirm this I extracted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from 32 selected movies and compared them. The movie selection was made using an independent list in order to avoid this researcher's possible bias. Translation errors a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Improbable Interpretation (IP), Unsited Interpretation (US), Better Literal Interpretation (BL), and Inappropriate Omission (IO). IP error occurs when the given interpretation of a source sentence can be rarely correct in any real contexts, not just in the context of the movie. US error occurs when the given interpretation is unsited to the context of the movie. BL error occurs when a more literal interpretation is preferred. And lastly, IO error occurs when some part of the source text is inappropriately omitted in translation.

The result was as expected: the translation was often unacceptably bad and in about a sixth of the movies more than 20% of the subtitles had one or another kind of errors. An interesting fact, however, is that there were also movies with very good subtitles, and that the quality difference between movies was very wide. I believe the variety is due more to the differences in translator's ability than to those in the movies themselves. Since it shows there are at least some good translators out there, suitable policy and support would be able to markedly increase the average quality of Korean subtitles. As for the type of translation errors, IP's and US's were most often. And the IP type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translations errors.

▶ Key Words: film translation, subtitle, DVD, translation errors

문원립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부교수

wlm@dongguk.edu

관심분야: 영화번역, 번역전략, 자막번역

논문투고일: 2008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08년 6월 17일